

상록탑

##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옳다

이주 전, 오준 전 유엔(UN) 대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오준 전 유엔 대사는 20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연설을 해 큰 이슈가 된 인물이다.

만나면 북한 인권 연설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만나서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다.

이런 고민을 안고, 그를 '사랑의 달팽이' 사무실에서 만났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라 검색해보니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등을 지원해주는 비영리 단체였다. 오준 전 대사는 이곳에서 활동 중이다. 사랑의 달팽이 외에도 그는 다양한 단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구나하는 마음에 신기했다.

오준 전 유엔 대사와 만나 국제기구, 여성, 북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 수 있었다.

그 중 '열린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직접적으로 현재 생활과 관련되어 기억에 남아 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나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



권소정  
사회부 부장

“

### 편안함의 범위 확장하려면

#### 열린 마음 필요

을만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이해하는 바탕인 열린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각자만의 범위가 존재한다. 대체로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낼 때,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 편안함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끼는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런 상황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전자가 후자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편안한 범위는 경험해본 적 없는 곳에 발을 내디뎌야 비로소 넓어진다. '게임을 할 때만 편안해'처럼 편안함의 범위가 좁으면 해외는커녕 국내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힘들다고 한다. 오준 전 대사는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편안한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어려운 과제였다. 언젠가는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주제넘은 일은 아닐까' 생각하며 지레 포기한 적도 있었다.

이런 심경을 이야기하자 오준 전 대사는 '탐구는 항상 옳다'는 문구를 소개해줬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라며 새로운 시도는 항상 옳으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해보기도 전에 옳은지 그렇지 따질 필요도 없다면서 말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격려 받으니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간질거리기도 했다. 오준 전 대사와의 만남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뒤에서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새로운 도전을 다시 한번 다짐해볼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학생 칼럼

## 내가 믿는 재능이 진정한 나의 교육

나는 대학교 3학년이다. 몇 달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취업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다. 아침을 먹다 갑자기 아빠가 '취업 준비는 하고 있니?' 라고 물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다. 답은 '전혀'였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은 하나씩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교환학생, 토익, 자격증 등.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부모님께서서는 그날 이후부터 물물질문을 던지셨다. 아니, 저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단니까요. 슬퍼졌다. 남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을까? 어느 날 아빠는 작정한 듯 날 식탁에 앉히고는 으박질렀다. 멍하고 무기력한 모습 말고, 입시 준비할 때 빛나던 눈을 보여 달라 하셨다. "아빠는 넌 왜 꿈이 없냐"고 물어보셨다.

모든 사람이 꿈이 있어야 하는가? 아니지,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꿈이 없는 사람인가? 왜 나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이유로 혼이 나야 하는 걸까.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였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공부만 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아니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가. 그때의 나는 분하고 억울하기만 했다.



윤주원  
심리15

“

### 무기력한 삶에서

#### 스스로 과대평가 해야

#### 당당한 나 될 수 있어

이 사건 이후 나는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부모님의 말씀은 날카롭게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았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봤다. 참 우스울 정도로 답이 빠르게 나왔고 꽤나 단순했다. 글을 쓰는 것.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난 글을 쓰는 것이 재미있다. 3학년이 돼서 새로운 동아리를 가입했다.

지금은 그 동아리에서 소설을 쓰고 있다. 놀람도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과제

와 전공 공부를 할 때는 억지로 하던 내가, 소설을 쓸 때는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키보드를 두드린다. 당장의 판단으로는 소설가 내 직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은 확실할 수 있다. 글을 쓸 때의 즐거움이 내 인생을 이끌 어갈 것이라고. 입에 발린 소리라고 무시했던,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다. 나는 어쩌면 나의 무기력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던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지성인이다.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빌미로 나를 과소평가했다. 나의 재능을 믿지 못했다. 애초에 재능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남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재능을 믿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나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화인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누구보다 대단하다. 그리고 매우 똑똑하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해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스스로를 믿어라. 그렇다면 당신의 미래에는 놀랍도록 멋진 당당함과 밝음이 늘 함께 할 것이다.

여론광장

## 허구적 이미지의 폭력

톱스타 여가수 이효리의 전원 생활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인기리에 종영했다. 그녀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남편 이상순의 그녀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대중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러한 티비 프로그램을 보고 혹자는 그들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꼈다고도 한다. 티비 속 연출된 이미지가 우리들의 욕망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욕망의 기준은 어떠한 틀로 자리잡아 때로는 개인에게 버거움을 안겨준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티비 속에서 본 연예인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는 본인과 다른 '그들'을 재현해달라는 요구가 몸에 맞지 않고 버겁기만 하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엄마에게 고정된 이미지로서의 '모성'을 요구한다. 어떤 엄마에게는 모

성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행동하는 게 어렵다. 그런데도 엄마의 개인성은 무시된 채, 고정된 이미지의 모성이 요구된다.

이처럼 개인의 바람직한 이미지는 하나의 상식과 틀로 고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들은 '폭력'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허상의 이미지 따위가 인간에 대한 폭력을 행하는 가능성은 차단되어야 한다. 젓을 먹이지 않아도, 자녀의 식사를 챙기지 않아도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허상의 이미지나 고정관념은 현상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킨다. 그 예로, SNS에서는 '상대를 사랑할 때 하는 행동'과 같은 글이 있다. 그러나 상대를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같게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다. 무심한

애인은 내가 SNS에서 본 '고정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날 무한히 사랑할 수도 있다.

즉, 개개인들의 행위는 고정된 이미지의 틀로써 해석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현상들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의 고정된 틀을 통해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는 '인지적 경제성'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상대의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인간에게 다소 힘겨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직업이나 적성과 같은 특성에 따라 개인의 행위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매번 상대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러한 사고는 다소 힘겨울 수 있지만, 이는 상대에 대한 폭력의 가능성을 차단해준다. 특정 이미지를 재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상대도 당연히 존중받고 이해받을 수 있어야 한다. 허상의 이미지 따위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한솔(사회교육16)

사설

## 총학의 자성과 본교생 관심이 필요한 시점

학생자치가 위태롭다. 최근 5년간 본교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은 50%대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서 맴돌았다. 미래대 사태 직후 59.6%로 반짝 오르다가 싶더니 올해 다시 54.7%로 떨어졌다. 학생자치기구의 한 해 활동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생회비 납부율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올해 1학기 기준 학생회비 납부율은 38.7%에 그쳤다. 10명 중 4명도 채 안 되는 학생만이 학생회비를 낸 것이다. 지난해부터 줄곧 학내 민주화를 소리 높여 외쳤던 이화에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적은 것은 일견 모순적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학교 정책 등에 대한 본교생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커진 모양새다. 이화이언 등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본교생들은 올해 상반기 총장 선출 방식부터 하반기에는 대외 이미지 향상, 고시반 지원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내 여론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선 TF팀이 구성돼 직접 행동에 나서왔다. 자연히 총학이 학생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축소됐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TF팀을 통한 활동은 익명의 다수로 운영되기에 그 정당성에 있어 공격받기 쉽다. 책임을 질 대상도 불분명하다. 반면 총학은 학교 당국과의 협의 테이블에 나설 자격을 갖춘 공식 기구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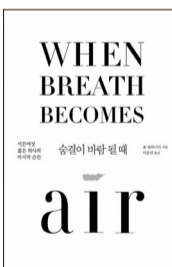
의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내 굵직한 정책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총학의 위상 제고가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학생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총학에 힘이 실린다. 계속되는 단일 선본 출마로 투표의 의미가 없다가,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알 수 없어 납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자치에 대한 무관심을 설명하는 학생들도 많다. 하지만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인식하고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총학의 자성이 필요하다. 현 시대에 맞는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총학의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총학은 외부 단체와의 연대나 사회적 활동을 더 중시한다' 등의 많은 학생들의 지적을 새겨두고 스스로를 뼈아프게 되돌아볼 시점이다. 대의기구로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총학과 학생사회와의 괴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총학 후보자가 없거나 투표율이 낮아 재차 선거가 무산되거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등의 사태 사례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선 안 된다.



금주의 책



**숨결이 바람 될 때** - 폴 칼라니티 지음, 서울: 흐름출판, 2016. 이 책은 서른여섯의 젊은 의사 폴 칼라니티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후 죽음을 마주한 2년간의 기록을 담은 회고록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했던 저자는 자신의 의학적 경험을 풀어 평소 느끼던 인생과 죽음의 문제, 의사로서의 소명, 처지가 바뀐 환자로서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합니다. 진심이 담긴 그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과 죽음, 가족, 직업의식 등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 출금주의 책 / 3층 일반자료실 828 K1241w한]

1101~1130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인소의 법칙	유한려	Itbook : 디앤씨미디어	2015-
2	서울대한국어 [개정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 : 투란즈,	2012-
3	신과 함께: 저승편	주호민	애니박스	2011
4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Rowling, J. K.	문학수첩	2003
5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Rowling, J. K.	문학수첩	1999
6	온화한 교수: 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안적 접근	McGee, John J, 박승희	교육과학사	1998
7	다른 방식으로 보기	Berger, John	열화당	2012
8	신과 함께: 신화편	주호민	애니박스	2012
9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애니박스	2011-
10	신과 함께: 저승편: 주호민 만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박스	2017